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6월 14일 (제105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심은 대로 난다

“도둑놈이라서 도적질을 했을까, 아니면 도적질을 해서 도둑놈이 된 걸까?” 참으로 아리송한 질문이다. 실제로 이 질문을 지인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해보면 대개 머리를 긁어대며 우물쭈물한다.

정답은 도둑놈이라서 도적질을 한 거다. 근본 마음에 악의 뿌리가 있으니 악이 열매로 형상화된 것이다. 씨 속에서 나무가 나는 법,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6~18).

우리 안에는 본시 죄성(罪性)이 있다. 이 유인즉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의란 있을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단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가 지금 의인이라고 머리 들고 사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되었기 때문이다. 고욤나무를 큰 감나무에 접붙여 쫘쫘 동여매어 놓으면 나중에 대봉이 주렁주렁 열리듯, 머무나무에 포도나무를 접붙이면 큰 포도를 생산하듯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참감람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맞다.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기에 돌감람나무인 우리의 속성, 곧 죄성이 사라지고 참감람나무의 속성인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아직 죄악에 물들어 사는가? 접붙임이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예수께 붙어야 하는 데 털, 대충 붙어서 그렇다. 그런 자는 절대 대봉을 맺을 수 없다. 고욤나무를 감나무에 접붙여 쫘쫘 싸매듯 예수와 쫘쫘 묶어야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한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로 인해 거듭나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다.

매사 분명하고 정확한 자가 되라

“나는 착한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목사님이 18번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3:15).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마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매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개진하며, 약속을 했으면 생명처럼 지키는 분명한 사람이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매사 분명한 자가 될 것을 촉구하셨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매사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분명

까지 셀만큼 자세하고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보험을 가입해도 그냥 ‘좋아, 좋아’ 하며 사인해주면 안 됩니다.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집을 계약한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아무리 가까운 형제, 친구라도, 교회의 장로, 집사라도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야 후환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分明)의 한자도 보세요. 나눌 분(分)입니다. 밝을 명(明)입니다. 나누되 밝히 보이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 선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부자기간에도 돈은

90%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내가 그토록 설교시간에 강조하고 강조하건만 그때는 판청피우다 당하고 나서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하니 낸들 어쩍니까? 문제는 자신들이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당하고 나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사무실은 장로님들 몇 분이 십시일반으로 매달 세를 내워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재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장로님들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너무하지 않느냐는 표정이었으나 사업

정직하고 분명하면 핏핏하고 땡땡하다

봉우 이초석 목사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으십니다. 온도계 같고 시계바늘 같으십니다. 노력한 것만큼 나에게 돌아오고, 기도한 만큼 능력을 받고, 심은 것만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세상사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매사 처음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신 반듯한 분입니다. 정확하다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정(精)은 자세할 정(精)입니다. 확(確)은 굳을 확(確)입니다. 곧 정확하다는 것은 자세하게 굳어 있다, 흐리멍덩한 상태가 아니라 머리털

세어서 받아라.’ 각서,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라 이겁니다.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짚고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련하여 욕을 당하고 남을 원망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망설일 것 없이 얼른 다시 처음부터 끼워야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알았으면 인정사정 동정 볼 것 없습니다. 계약서 찢어버리고 다시 쓰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얼굴 붉힐지 몰라도 나중에는 같이 웃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계약할 때 굳은 얼굴로 시작하지만 웃고 나온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웃고 들어갔다 싸우며 끝난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분명하고 정확하게 따지며 짚고 넘어가야할 텐데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러며 설렁설렁 대충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불성사나온 꼴을 보고 종당엔 원수가 됩니다. 교인들 상담의 8,

하는 장로님들은 큰 걸 깨달았다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사화복(生死禍福)을 네 앞에 두니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건지, 세상과 짝할 건지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선택에 따라 나도 분명히 선악 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부탁하건대 제발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 분명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20:17~24)



의욕을 쯔먹는 마귀를 대적하라

소경 바디매오에게는 ‘꼭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목청껏 예수를 불러 소원을 이뤘습니다. 어리고로 가는 예수님 앞에 어찌 소경이 바디매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매오가 다른 소경과 다른 것은 바로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의욕이 늘 불일 듯 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경들은 ‘오늘 먹을 것이나 빌어먹자.’ 하며 살았지만, 바디매오만은 눈뜨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워 마침내 소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막10:46~52).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딸이 나음을 입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의 면전에 대고 “개 같은 여자여, 어딜 감히!”(막7:27)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막7:28)라고 했습니다. 의욕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셨고, 소원을 이뤄주셨습니다(마15:28).

의욕은 넘지 못할 벽이 없다

이렇게 ‘뭔가 하고야 말겠다’, ‘뭔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 자세를 일컬어 의욕(意欲)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욕적인 자들은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더욱 의기충천하여 그것을 뛰어넘고 뜻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달려가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고 공언한 것은 어떠한 불가능의 조건도 자신의 불타는 의욕, 복음전파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욕이 넘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수없이 이를 시도했지만 병으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지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의욕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에게 먼저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5:6). 그는 뒤통수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났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며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맡기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산 모세에게 의욕이란 없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인생을 세월에 맡긴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이 되어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목적도 의욕도 없이 살던 모세는 당연히 ‘못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요, 안 돼요.’ 할 수밖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의욕을 생성케 하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이 의욕을 상실한 지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욕이 상실된 자들의 공통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의욕을 쯔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두려운 자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혼할까 두려운 자는 결혼하지 말고, 편지 맞는 것이 두려운 자는 첩피연의 꿈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보십시오. 두려우니 자신들이 매뚜기 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이 내 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담대한 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당장 풀무불

로 던져질 위기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느브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단3:16~17)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훼방하고 협박하자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느4:14)하고 백성들을 독려했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며 이스라엘

엘사 람 들을 협박할 때, 어린 다윗은 맷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거늘 그런 상황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 곧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

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1:5~9). 이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에 살아 저를 움직입니다. 36년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와 같은 길을 걸었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핍박과 온갖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해야 의욕이 샘솟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깐 그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돌을 명하여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서 썩이 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과 만인을 부리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13:6). 여러분, 만물은 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고 여호수아가 명하니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고(수10:12), “파도가 잠잠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막4:39).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도 베에 싸인 채로 무덤을 나왔습니다(요11:43).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 곧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힘입어 만물을 명하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 떨면 그것의 율무가 될 뿐입니다(잠29:25).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집은 팔려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암은 물러가라.” 반드시 명령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성도에게, 친구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말을 하세요. ‘넌 안 돼.’ 그러지 말고,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야 의욕이 넘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9).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자

말, 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를 멸시하신다(삼상2:30).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아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 씩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임을 기억하고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여 죽이지 않았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일로 책망했을 때도, 성전 문제로 찬성했다가 다음 날 반대했을 때도 나단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여 감사하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문에서 왕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가 오시는 길로 쓰임 받는 축복을 주셨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 가족은 제사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등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몰사하게 하시고, 제사장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로 6월에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갖고 장막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자기 뜻대로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불에 타죽는 화를 당했다. 앗수르 왕 산헤립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18만 명의 모든 군사를 죽이고, 얼굴이 부끄러워 퇴각한 산헤립 왕을 본국에 돌아가 저네들의 칼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며 선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나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며 탐욕과 음란과 사기 치고 다투고 거짓 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도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존중하는지 판단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멸시받으실 일을 하신 적도,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도 없으시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죽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 말라기 4장 16절~1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 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자랑하신다.'고 하셨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한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러 여행을 하는 중에 식사 때가 되어 자주 다녔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사진작가를 알아보고는 그간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사진작가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었던 터라 작업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 본 후에 식당 주인이 하는 말,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참 잘 찍혔네요.” 사진작가는 기분이 엄청 나빴지만 꼭 참았고 밥을 다 먹은 후에 계산을 하면서 강편치를 날렸습니다.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참 맛있네요.” 우리 어머니들이 떡을 만들 때면 체에다 쌀가루를 몇 번이고 거른다. 덩어리를 없애서 떡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다. 말도 체에 걸러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을 게 아니라 한 번 거르고 두 번 생각해 서 해야 실수하지 않고 말의 맛이 난다. 말은 절대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

니다. 성경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10:19)고 하셨다. 세상 모든 것에는 등급이 매겨진다. 소고기를 사도 등급이 있고, 옷을 사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말(言)에도 등급이 있다. 그런데 말이 곧 그 사람 아닌가. 그러니 말에 따라 사람의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열린 수도꼭지처럼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의 등급은 어찌 책정될까.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법, 말에 품격을 갖추자.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 절제된 말, 남을 살리는 말, 긍정과 희망의 말로 내 가치를 올리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0~11).



투게더(Together)

혼자일 때 당신은 누구인가?

수백그루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그루의 나무란다. 그것은 하와이 마우이섬 라하이냐에 있는 반얀 나무(Banyan Tree)인데, 이 나무는 수많은 가지들 땅으로 뻗치고 뿌리를 내려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을 만드는 특성이 있고, 번식력이 강해서 한 그루가 산을 덮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반얀 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가 덮고 있던 땅은 메마르고 황폐한 불모지가 된다고 한다. 뽐뽐하고 거대한 반얀 나무 밑에서는 모든 영양분이 차단되어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번식력이 강한 또 하나의 나무가 있다. 바나나 나무이다. 생후 6개월이면 새순을 내고,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 줄기를 따서 옆에 심으면 짧은 시간 안에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서 바나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하지만 바나나 나무는 반얀 나무와는 다르게 땅에 떨어진 나무의 잎사귀가 거름이 되어 주위의 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반얀 나무와 바나나 나무는 둘 다 번식력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위에 끼치는

영향력은 정반대인 것이다.

반얀 나무의 번식력은 다른 식물들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차단하고, 혼자만 성장하고 혼자만 살아남는다. 하지만 바나나 나무의 번식력은 스스로 거름이 되어서 주위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함께(Together) 생존하고 함께(Together) 성장하며 함께(Together)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간다.

우리 신앙생활은 ‘홀로’(alone)가 아니라 ‘함께’(Together)이다.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투게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투게더’ 말씀을 배울 때 함께 성장하고, ‘투게더’ 봉사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투게더’ 전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해질 것이다.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지체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숲을 이룰 것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순투성이다. 결점도 많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해야 한다. ‘함께’라는 바나나 나무처럼.

이정금 전도사

n번방 사건을 아시지요? 아주 악독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운영한 자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회사원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회사 사람들도, 학교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그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완벽하게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쓰고 있던 가면을 내던지고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집사로서, 장로로서 예수를 전하던 입술에 세상의 독을 머금고, 악을 품고 있진 않은지. 조금 전에 구제하던 손으로 남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가식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당신의 참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이 모습이 대중 앞에서의 모습과 일치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혼자 있을 때의 당신 모

습을 모릅니다. 당신만의 셀프카메라지요. 그러니 자가 진단을 해볼 밖에는. 당신이 만약 두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영원히 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홀로 있을 때는 어둠의 자녀로 탈바꿈을 용의주도하게,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연기로 완벽한 이중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중생활을 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셀프카메라 외에 몰래카메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카메라입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녹화하고 있는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날 전혀 편집 없이 방영될 겁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냉철한 심판대에 벌거벗은 몸으로 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가면을 벗읍시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대중 속의 모습을 일치시킵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일대기가 방영되는 날 진실된 자라 칭하시고, 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눈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으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제 삶 속에서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고, 때가 되면 이뤄지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10년 전 베푼 작은 배려를 잊지 않은 한 성도가 보낸 감사의 편지를 함께 공유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는 말씀이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 글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닫힌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정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어서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 목사님께 카네이션을 전해드리면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카네이션을 드리면 기뻐하실 텐데 하는 생각도 하면서요. 떨어져

카네이션은 드리려 가지 못하고, 그래서 SNS로나마 감사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제가 일본 갔다 온 지 딱 10년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일본에 머무는 동안 베풀어주셨던 은혜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기도하는 내내 엄청나게 울었던 저에게 쥐어주셨던 3만 엔. 가끔 주일 저녁에 집으로 초대해주셔서 저녁밥도 챙겨서 먹여주셨고, 궁핍한 생활에 나들이 못할까봐 철마다 꽃구경도 시켜주시고, 단풍 구경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 주시고, 예쁜 옷 있으면 사다 주시고…. 저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잊을 거예요. 철없던 저에게 신앙의 근본을 가르쳐주신 덕분에 지금은 많은 것들을 그 위에 또 쌓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는 서울 청년부에서 찬양으로, 3

부 대예배에서 찬양으로, 이시대 목사님께서 하시느 JC 아카데미에서도 찬양으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셨던 기도하는 습관은 지금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게을러져서 탈이긴 하지만, 틀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가르침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근본에 충실하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셨던 은혜도 골수에 새기고 떠올리며 저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이제야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철딱서니를 용서해주세요. 목사님, 깊은 은혜와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정은정 올림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New Normal of Faith

2020년 새해. 다양한 계획과 함께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실천은커녕 기존의 생활방식과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 생각지 못한 일상의 변화로 많은 전문가는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상황, 시기, 분위기 등 수많은 예측을 꺼내놓고 있다. 대체로 하는 말은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코로나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부른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기준들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사회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는 사회 전체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을 급속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득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뉴 노멀을 갖는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새로운 표준들을 가져왔듯 우리 역시 신앙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구축구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맞는 뉴 노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뉴 노멀(New Normal of Faith)’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전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적인 배경, 인맥, 그리고 그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관점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허물어뜨려야 새것이 된다는 얘기이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었는지를 말이다.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뉴 노멀’이 아닐까 한다.

「당당한 결별」의 저자는 “우리 모두가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를 하나씩 두고 뭐든 물어보면 답을 찾아준다. 이런 세상에서 답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자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누구나 박사 수십 명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답 잘 찾는 모범생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쩌면 믿음의 뉴 노멀(New Normal of Faith) 역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믿음의 새 표준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하고 우리 삶에 ‘Why(왜)’라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지만, 이 물음이 끝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 없고 오히려 무능력해질 것이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될 테니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왜 부르셨는지, 왜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왜, 왜?’ 하고.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새로워질 때 이 땅에서 쓰임 받기 합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능력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변을 살피는 것. 그것이 믿음의 뉴 노멀(New Normal of Faith)이 아닐까 한다.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우리는 믿음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매여 하루하루 영과 육이 기뻐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고독의 장점

어릴 적 우리 집은 바다 건너 큰 마을과 외떨어져 있었다. 바다를 끼고 돌아 산을 넘는 등고 거리는 1시간 이상 걸렸다. 늘 혼자 등하교를 했던 내 손엔 항상 책이 들려있었고, 걸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거침없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시야도 넓어져 갔다. 때로는 머리에 책을 얹고 신데렐라처럼 예쁜 걸음을 걸기도 하며 독서습관의 틀을 다져갔다.

밤이 되면 마당 어귀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에 매어놓은 나룻배에 누워 정적에 몸을 맡기고 북두칠성을 찾아보기도 하고, 보낸 엽서와 신청곡이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청취하며 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부러 고독의 시간을 찾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유약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무리를 짓거나 친구가 많음을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혼용한다. 그러나 분명히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고독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외로움은 쓸쓸한 마음을 의미한다. 즉 혼자 있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로운 것이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사고를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물론 창조의 원천을 찾기도 한다.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고독은 때론 달콤하다. 대중에 끼어 무의미한 소리를 내는 것보다 나만의 시간 속에서 창조되는 것이 많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알림이 울릴 때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우리에게서 떠나 나만의 시간을 허락하자. 성공한 모든 자들이 바쁜 와중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독서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고독이란 쓸데없는 생각과 의미 없는 대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성찰의 귀한 시간이니깐.

추성숙 집사

